

SK하이닉스, '신입·경력' 채용... "인재 확보도 삼성과 경쟁"

등록 2024.07.04 08:58:46



SK하이닉스 이천 M16공장 전경. (사진제공=SK하이닉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SK하이닉스가 신입·경력 사원 채용에 나선다. 전날 삼성전자가 경력직 채용 공고를 내자마자 SK하이닉스도 채용에 나서는 모양새여서 양사가 반도체 인력 확보를 위해 자존심 대결에 나섰다라는 평이다.

여름철인 7월에 SK하이닉스가 대규모 채용을 단행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차세대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이날 신입과 경력 사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냈다. 전체 채용 규모는 세 자릿수다. 통상 대기업 공개채용은 매년 4월과 9월에 이뤄지는데, SK하이닉스가 7월 채용 공고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전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이 오는 9일까지 무려 800여개 부문에서 경력직 채용에 나선 것과도 묘한 대비를 이룬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채용을 통해 최근 HBM 생산 등 신규 투자를 발표한 청주 M15X 공장과 본사인 이천공장 등에서 일할 인재를 대거 뽑는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인 '핀펫(FinFET)'을 비롯해 기반 기술과 양산 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채용에 나선다.

신입사원은 서류 전형 통과 후 입사시험인 'SKCT' 및 면접을 거쳐 9월 말에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경력사원은 11월에 입사해 근무 현장에 바로 배치된다.

SK하이닉스는 오는 9월에는 경력 2~4년차를 대상으로 '주니어탈런트' 전형을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채용도 예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AI 반도체 수요 확대로 반도체 기업들의 인재 채용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중복되는 모집 부문에서 인재 모집에 경쟁하는 것이어서 더 주목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jy5223@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